

## 광주·전남 재산세 부담 13% 늘었다

〈올 1분기 주택·건축분〉

### 전국 평균 17%에 못미쳐...부동산 가치 저평가 지역 최고 납세, 전남 광양제철 36억원 부과

광주시와 전남도내의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 보다 각각 13% 가량 늘었다. 재산세 중 '주택 재산세'의 경우 광주는 전년 대비 13.5%, 전남은 전년대비 10%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 17%에 크게 못 미쳐 이 지역 부동산 가치가 여타 지역에 비해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건물 과세표준 적용률 및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향 조정 등에 따라 재산세가 증가했으며, 전남은 주택공시가격과 건축물 및 선박 과세시가 표준액 등이 오름에 따라 상승했다.

광주시는 11일 올 1분기 주택 및 건물 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3.8% 늘어난 300억원이고, 그중 주택을 과표로 하는 재산세는 13.5% 증가한 156억원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물, 주택(부속토지포함)의 2분의1,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부과된 것이다.

부과된 재산세 항목별로는 주택분이

41만2천건 97억원이고, 건축물 등은 7만9천건에 145억원이다. 자치구별로는 대형 건물과 아파트가 많은 서구가 7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북구 59억원·광산구 50억원·동구 30억원·남구 2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재산세 최고 납세는 기아자동차 1억3천800만원이 부과됐고, 주택분 최고 납세자는 220만원이 부과된 신한은행(직원 기숙사)이다.

이 같이 주택 및 건물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건물 과세표준 적용률이 지난해 50%에서 55%로 상향조정됐고, 신축건물 기준가액조정(1㎡당 46만원→47만원) 및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분양과 대형건물 신축에 따른 신규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여수시가 전체 638억원 가운데 21%에 이르는 1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순천시가 109억원, 목포시 108억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신안군으로 2억원이 었다. 이는 가장 많은 여수시의 1.5%에 불과한 액수로 지역별로 극심한 빈부차

광주	순위	전남
기아자동차	1억3천800만원	1 광양제철 36억원
현대백화점	1억400만원	2 여수한국석유공사 6억4천만원
금호산업	8천800만원	3 영암삼호중공업 5억2천만원
주상우호(태인먼트)	8천900만원	4 현대라이프 1억9천만원
금호타이어	8천만원	5 여수LG화학 1억7천만원

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여수와 순천, 광양(90억) 등 동부권 3개 시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336억여 원(53%)을 차지해 '동부 서번'(東西富) 형국을 보여주었다. 이는 여수산단, 광양제철 등 전남지역 생산시설 대부분이 동쪽에 위치해 지역 부가가치가 서쪽에 비해 월등하게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내 재산세 최고 납세는 광양제철로 36억원, 개인의 주택분 재산세 최고 납세자는 여수시 서교동 차모씨로 2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16일과 17일이 공휴일이므로 18일부터 시·군에서 지정 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물게 된다.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매기는 2기분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된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취업준비생 45% 국영기업 선호

응답자 63% "조건 맞으면 지역 중소기업 일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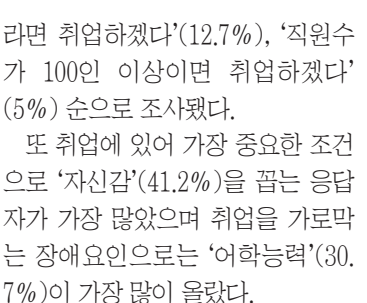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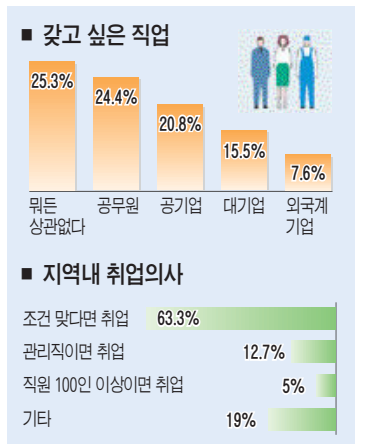
광주지역 청년층은 자신의 직장으로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보다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가 '사랑방 잡'과 공동으로 광주지역 청년 999명(18~29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2%가 가장 갖고 싶은 직업으로 공무원과 공사 등 국영기업체를 선택했다.

직업별로는 '어디든 상관없다'가 25.3%로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24.4%), 공기업(20.8%), 대기업(15.5%), 외국계 기업(7.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중소기업에 취업하겠다는 응답자는 3.9%에 그쳐 공직과 대기업 선호풍조를 반영했다.

그러나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해소되고 근로환경이 개선되면 중소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81%나 차지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생각이 있는지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3%가 '임금조건만 맞다면 취업하겠다'고 답했으며 '관리사무직이



라면 취업하겠다'(12.7%), '직원수가 1000 이상이면 취업하겠다'(5%) 순으로 조사됐다. 또 취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자신감'(41.2%)을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취업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는 '어학능력'(30.7%)이 가장 많이 올랐다.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실문결과 안정된 직장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호에 대한 편중 경향이 있어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직업정보 및 체험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희기자 jhlhm@kwangju.co.kr

주가지수	환율	금리
+1.15	+1.80	-0.03
1,300.44 (코스피지수)	947.40 (원/달러)	4.92%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74.98	(-1.40)
다우 (10일)	11,103.55	(+12.88)
나스닥 (10일)	2,116.93	(-13.13)
닛케이	15,473.82	(-78.99)
엔-달러 환율(도쿄 17:00 기준)	112.53엔	(+0.53)
유로-달러 환율	1.2780달러	(-0.0093)
3년만기 회사채	5.20%	(-0.03)
블룸버그	4.20%	(보합)

### 금호생명 출산 고객 보험료 할인

금호생명은 11일 자녀를 출산한 고객에게 보험료를 깎아준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험과 종신보험 가입자 가운데 6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고객은 보험료가 자녀 수와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 0.5~2.5% 할인된다.

이는 신규 고객 뿐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주보험 가입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출생 자녀가 1명이면 1.5%, 2명이면 2.0%, 3명 이상이면 2.5%가 각각 할인된다. /장필수기자 buny@kwangju.co.kr

7월 12일 OPEN

## 금호지구, 광주의 8학군을 분양합니다!

**경품대 추첨**

- ▶ 1등: 100만원 상당의 생활가전 세트
- ▶ 2등: 50만원 상당의 생활가전 세트
- ▶ 3등: 20만원 상당의 생활가전 세트
- ▶ 4등: 10만원 상당의 생활가전 세트

**36평형 | 257세대**

**682-1300**



**미니채소 인기**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최근 미니토마토를 비롯 당근, 오이, 파프리카 등 보통 품종의 3분의 1 크기인 미니채소를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판매해 눈길을 끌고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 'e-비즈니스 소상공인 창업' 지원

**광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컴퓨터 활용등 실습 교육**

광주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한일)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와 공동으로 13~14일 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교육장에서 불황탈출을 위한 'e-비즈니스 소호창업 실무강좌'를 개최한다.

'e-비즈니스 소호창업 실무강좌'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컴퓨터를 활용한 실습위주로 진행되며, 특히 포괄적인 사진촬영과 포토샵 활용 등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 국내 최대 경매형 e-마켓플레이스인 옥션을 활용한 창업실무 교육을 통해 소자본으로 창업가능한 아이템 선정요령, 상품 촬영 실습 및 판매상품 등록실습을 교육한다.

수강신청이나 창업강좌 안내를 원하는 사람은 광주 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062-366-2122)에 문의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태풍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광주국세청, 세납부기한 연장**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권춘기)은 태풍 예위니아로 인해 재해를 당한 납세자들이 빠른 시일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제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줄기로 했다. 또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중소·벤처 성공하려면 마케팅 고지 넘어라"

**허범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광주 특강**

허범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11일 광주를 방문,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연수원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제와 기업인의 자세'에 관해 특강했다.

허 이사장은 강연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성공하려면 기술(Technology), 생산(Production), 마케팅(Marketing)이라는 3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면서 "TPM" 이론을 주창했다.

허 이사장은 "기술고지가 해발 1천m라면 생산고지는 2천m, 마케팅고지는 3천m로 중소기업이 가장 넘기 힘든 고지가 마케팅고지"라고 전제하고 "중소기업이 3개의 산, 특히 가장 넘기 어려운 마케팅고지를 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강을 마친 후 허 이사장은 10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단 회의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향후 정부의 지원시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광주지역본부 현판식**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천국)는 10일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1층에서 농협임직원 및 광주지역 주요기관 노동조합 위원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본부 현판식을 가졌다.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는 우리 농업을 지키고 농축산물 애용을 돕는 전제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으며 전국적으로 100만명 회원가입을 추진 중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